

지역 진로교육 참여 유형 비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학교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남. 진로체험지원센터 유형별 진로교육 지원 양상 비교 결과, 지자체 중심 운영 센터는 교육과정 변화에의 대응 준비도와 업무 실행 수준이 높은 반면,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는 교사 참여도가 높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균형 잡힌 협력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계가 필요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지역사회의 진로교육 참여 양상과 효과적 협업 방안 모색 필요

- 2014년부터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¹⁾는 학교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 및 방식에 따라 다양한 운영 체계를 보임
- 지역 기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효과적인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협업 양상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 교육과정 연계·협력 실태 분석」 설문조사(2024)

- 분석 대상: 전국 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장(혹은 실무책임자)
 - 총 219개 센터 중 200개 센터가 응답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 응답 등을 제외하고 193개 센터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함

표 1 | 진로체험지원센터 유형별 응답 센터 수

(단위: 개, %)

센터 유형	교육청 직영	교육청 위탁	지자체 직영	지자체 위탁	계
응답 센터 수	52(26.9)	57(29.5)	22(11.4)	62(32.1)	193(100)

1)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체험처 발굴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학교 진로체험 운영 지원,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 진로체험지원 자원봉사자 인력 모집 및 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

※ 이 글은 '정지은 외(2024)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학교 교육과정 연계·협력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재정리한 내용에 별도의 분석을 추가하여 작성함.

02 지역 규모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 2024년 기준, 전국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219개가 운영되고 있음

- (운영 주체 측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운영 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의 직영 형태와 위탁 형태로 구분하여 총 4가지 유형이 존재함
- (운영 예산 측면) 219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자체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는 센터는 127개로 센터의 약 60%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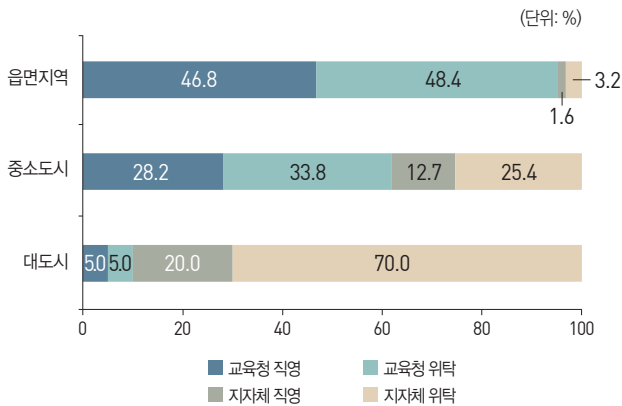
| 표 2 | 시도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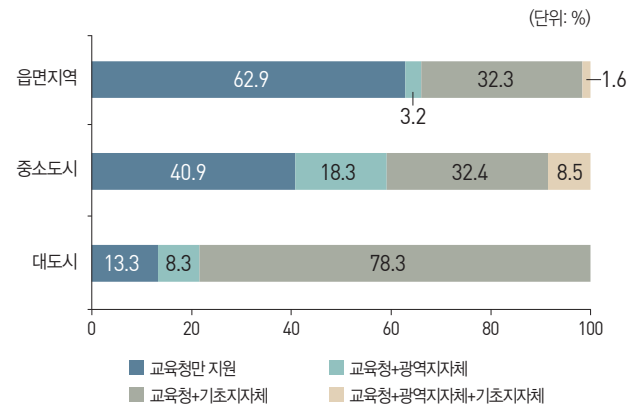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센터 수	25	16	5	10	2	4	5	1	31	18	10	14	14	22	22	18	2	219
교육청 직영	0	0	5	0	0	0	0	1	3	1	0	0	14	13	19	12	1	69
교육청 위탁	0	0	0	1	0	3	0	0	2	17	10	14	0	8	3	4	1	63
지자체 직영	6	1	0	5	0	0	0	0	9	0	0	0	0	0	0	1	0	22
지자체 위탁	19	15	0	4	2	1	5	0	17	0	0	0	0	1	0	1	0	65

| 지역 규모에 따른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임

- 지역 특성과 가용 자원에 따라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 구조가 다름
 - 운영 체계에 있어 대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예산 출처에 있어 대도시는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공동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교육청의 단독 지원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그림 1 | 지역 규모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유형



| 그림 2 | 지역 규모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지원

03 진로체험지원센터 유형별 학교 진로교육 지원 현황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학교급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비율은 96% 이상으로 매우 높고, 유형별 다른 양상을 보임

- 모든 유형에서 중학교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자체 중심 운영 센터에서는 고등학교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원 비율이 증가하며, 고등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원 비율이 감소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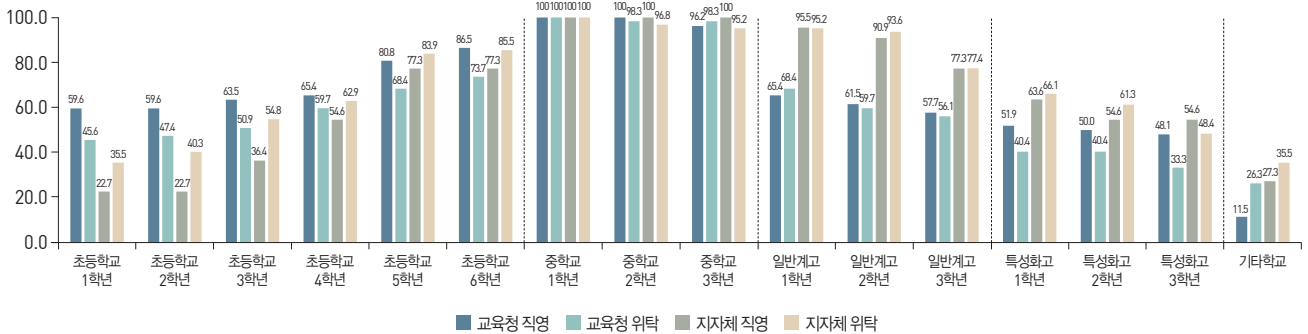


그림 3 | 진로체험지원센터 유형별 학교급 지원 현황

업무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는 지자체 중심 운영 센터보다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중요도 및 실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 중심 운영 센터는 실제 실행 수준이 높은 반면,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는 중요도와 실제 수행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업무 중요도 인식에서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지자체 중심 운영 센터는 '지역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관으로의 총괄'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실행 수준에 있어 교육청과 지자체 위탁 센터는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연계의 허브' 업무의 실행 수준이 가장 높고, 교육청과 지자체 직영 센터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의 실행 수준이 가장 높았음

(단위: 점/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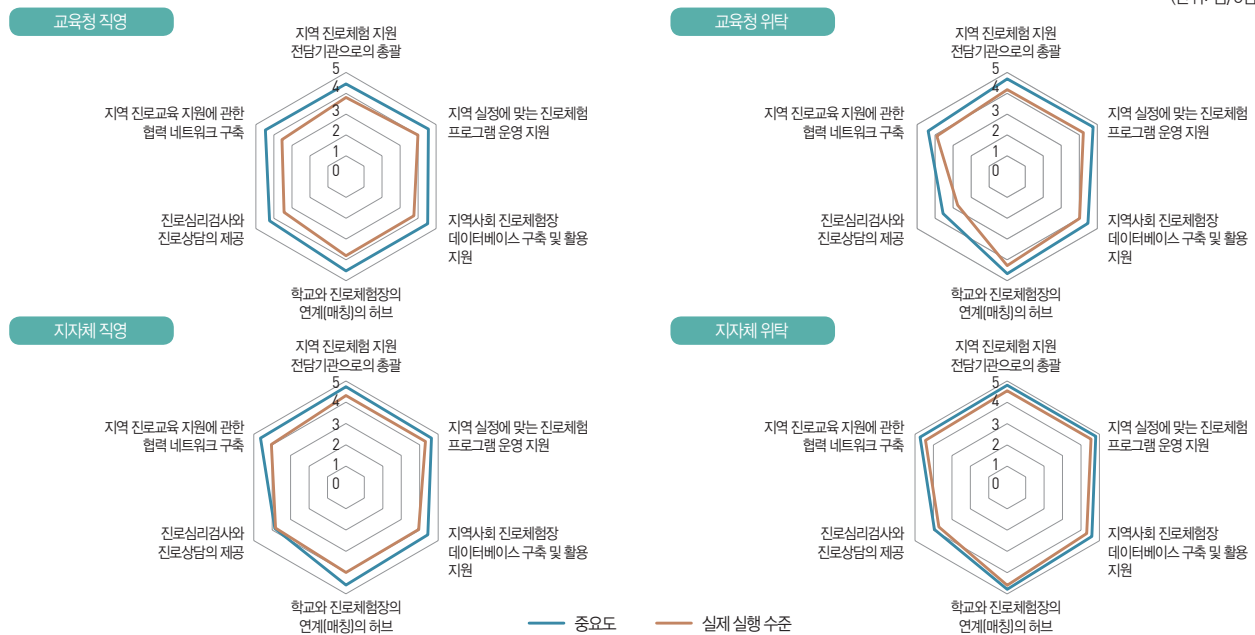


그림 4 | 진로체험지원센터 유형별 업무 중요도와 실행도

학교 교사의 참여도 인식에 대해서는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가 더 높게 나타남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체험처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할 학교 교사의 참여도 조사 결과, 관할 학교 교사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 검토를 하거나 체험처를 모니터링 하는 등 '간접적으로 참여(39.4%)'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체험처 발굴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31.1%)'과 '적극적으로 참여(29.5%)' 순으로 나타남
- 이를 유형별 분석한 결과, 교육청 위탁과 교육청 직영의 경우 교사의 적극적 참여 비율이 더 높은 반면, 지자체 직영의 경우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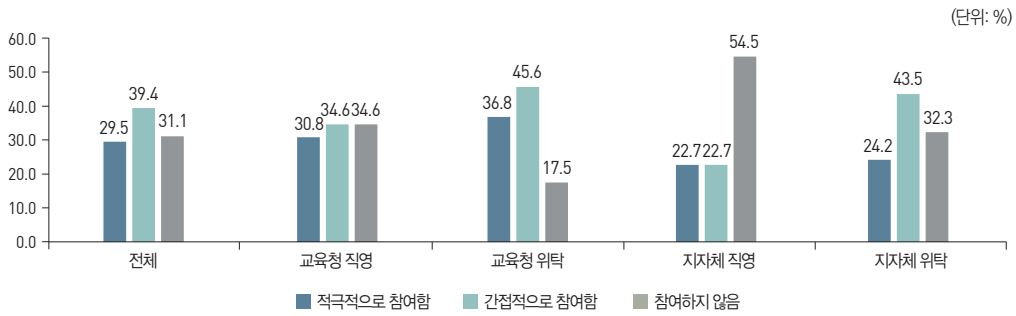


그림 5 | 센터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 업무 내 교사 참여도 인식

학교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대응 비율은 지자체 중심 운영 센터가 더 높으며,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는 지원 가능 인력의 부족으로 한계를 보임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학교 교육과정 변화 대응 현황 분석 결과, 지자체 중심 운영 센터에서 ‘학교자율시간’, ‘진로연계교육’, ‘고교학점제’, ‘지역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교육청 중심 운영 센터는 ‘알고는 있으나 지원 가능한 인력이 부족하다’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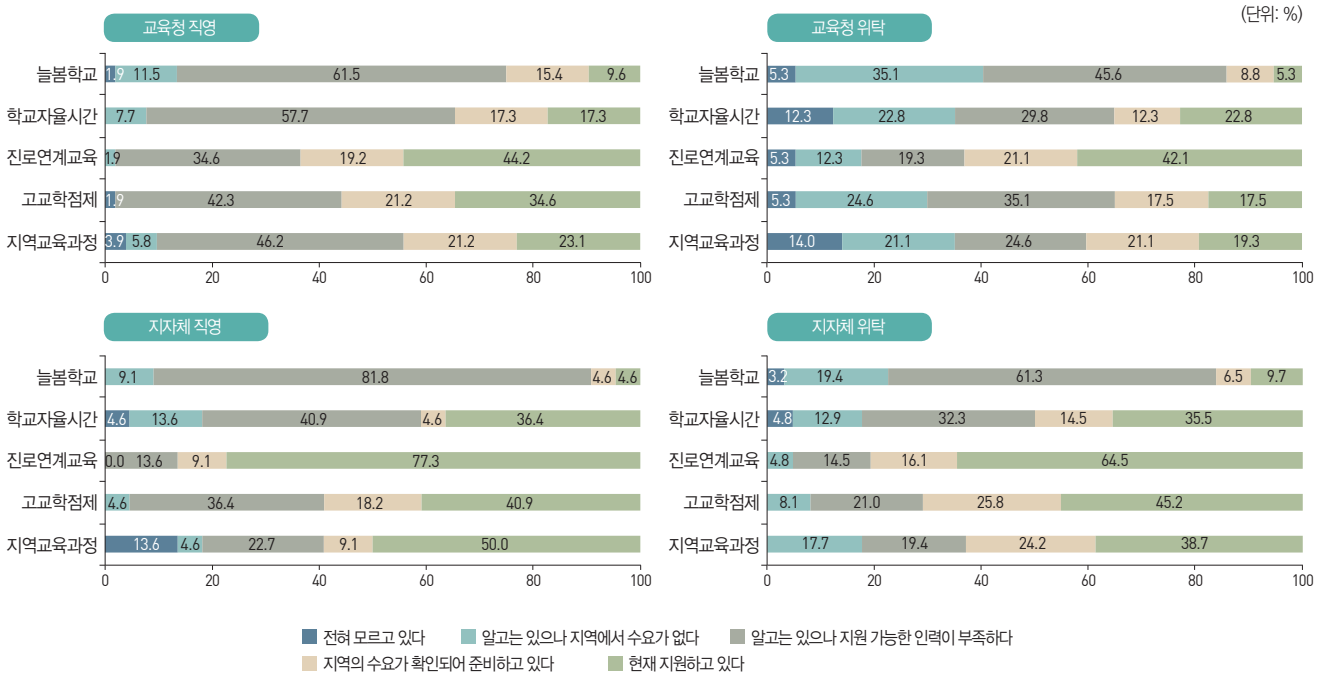


그림 6 | 센터 유형별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학교 교육과정 변화 대응 현황

04 시사점

-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임. 진로체험지원센터 유형별 학교 진로교육 지원 현황 분석 결과, 지역마다 다양한 협업 양상이 확인되며, 유형별 특성이 나타남
-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과 교육발전특구 등의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진로교육의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가 요구됨
- 진로체험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과 지역사회 기반 진로교육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중요하며, 지역 규모에 따른 운영 체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